

2021.8.20.(금) 조간 <온라인은 즉시 가능>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료문의) 연구관리지원팀 이남진 팀장 (053-980-8307, hohomen@kbri.re.kr)

한국뇌연구원, 알츠하이머병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한 (주)포스백스와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 한국뇌연구원(원장 서판길)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주)포스백스와 공동 협력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관련해 한국뇌연구원이 활발하게 연구 중인 ‘바이러스유사체(Virus Like Particle, VLP)’ 기반 백신을 조기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주)포스백스(대표 김홍진)과 공동연구 협약을 19일에 체결했다.
 - 바이러스유사체(VLP)는 유전물질 없이 구조단백질로 구성된 바이러스로 사람 몸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만 유도하는 백신 형태로 최근 코로나19 백신개발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뇌연구원 뇌발달질환연구그룹 이석원 그룹장을 중심으로 양 기관은 VLP기반 알츠하이머 예방 백신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 (주)포스백스는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백신 GMP생산과 백신의 임상 1상 진입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VLP 제조기술과 관련 세계 22개국에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프리미엄 백신과 항암제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 한국뇌연구원 이석원 그룹장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뇌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토대로 빠른 기술개발과 임상적용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양 기관 협력하에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주)포스백스 김홍진 대표는 “우리나라 뇌과학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국뇌연구원과 공동으로 바이러스유사입자 기반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신약개발로 세계 뇌과학의 흐름을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한국뇌연구원 원장 서판길(우측)과 (주)포스백스 김홍진 대표(좌측)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